

‘인천 종주길·둘레길’에 역사·문화 입힌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인천시는 한남정맥 녹색 종주길과 둘레길 16코스를 '인천 역사문화 둘레길'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16억원을 들여 계양산부터 송도 솔찬공원까지 한남정맥 종주길 60km 구간과 월미산·자유공원 등 둘레길 16코스 141km 구간에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안내판 26개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인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사업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단절된 녹색길을 연결하고, 인천의 종주길과 둘레길에 대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원주 인증 스탬프 등대 및 포토존을 설치하는 한편, 인천 역사문화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원주 메달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둘레길(종주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사업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억원을 지원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연차별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10억원을 들여 종주길 3코스인 서구 가정동 산 104번지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통해 녹지 축을 연결한다.

둘레길 16코스와 녹색 종주길 10코스에 대한 '역사문화 스토

리텔링 북'은 내년에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후 안내판 교체, 방향 안내시설 설치, 스토리텔링 안내판 26개·둘레길 마스크트 50개·방향 안내시설 300개 설치 등 안내 및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7월 '인천사랑실천 건강걷기대회'에 참가해 어린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送舊迎新

인천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